참 고 도 서

- Anderson, Bernhard W., The New Covenant the Old: in "The Old Testament and Christian Faith," Ed. Bernhard W. Anderson,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9, pp. 225~242.
- Garver, Everett I., When Jesus Comes Again, New Jersey Phillipsburg, 1979.
- Clemenls, R. E. Prophecy and Covenant, London, SCM Press LTD, 1965.
- Gesenius' Hebrew-Chaldee Lexicon to thd Old Testament, Tran. Samuel P. Tregeus, Michigan Grand Rapids, 1980.
- Harrisville, R. A. The Concept of Newness in the Testament: in J. B. L. 74 (1955) pp. 69~79.
- Hengstenberg, E. W. Christology of Old Testament and a Commentary on the messiance Predictions Vol. Ⅱ-Ⅲ. Tran. Rev. Thod Meyer, Edinburgh.
- Kell and Delitzs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Ⅶ-Ⅸ, Michigan, Green Rapids, 1969.
- Kaiser, Walter C.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Zondervan, 1980.
- North R. חרש , 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Ed.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en, Tran, David E. Green, Michigan Grand Rapids 1980, pp. 225~244.
- Westermann C. , in Theologisches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Zweite Band, Herausgegeben Von E. Jenni,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71, pp. 524~530.
- Wolff, H. W. The Understanding of History in the Old Testament Prophets, in Fssays on Old Testament Hermeneutics, Ed. Claus Westermann, Virginia, John Knox Press, 1963. E
- 로벗슨, 팔머.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보만, 토를라이프.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 비교, 허혁 역, 분도출판사, 1975.
- 브라이트, 존. 하나님의 나라, 김철손 역, 컨콜디아사, 1973.
- 라트, G. 폰 구약성서신학 Ⅰ. Ⅱ권, 허혁 역, 분도출판사, 1권, 1976, 2권, 1977.
- 칼빈, 존 구약성경주석, 이사야 Ⅲ-Ⅳ,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성서교재간행사, 1980.

高麗神學報
第10輯 (1985. 6)
pp. 55~66

가나안종교와 이스라엘 민족

이 세 령*

차 례

Ⅰ. 서 론
Ⅱ. 가나안 위치와 종족
Ⅲ. 가나안 종교연구 자료의 신빙성
Ⅳ. 가나안 종교의 제신과 역할 -고고학적 측면-
Ⅴ. 가나안 종교의 제신과 역할 -성경적 측면-
Ⅵ. 결 론
참고도서목록

Ⅰ. 서 론

신 7 : 1[1], 신 20 : 13~20[2], 출 34 : 13[3], 수 11 : 14[4] 을 보면 가나안족을 진멸하라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이에 대해 H. H. Rowley교수는 일반적으로 가나안인 혹은 특별히 여리고와 그 주변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서의 일련의 이야기들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상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순하게 저자의 잘못된 생각과 혹은 진실로서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신에 관한 문제점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 이 말에서 교수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하는 반론을 펴고 있다.

과연 가나안의 정복과정에서 가나안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이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편에서 혹은 부분적이나마 최소한 그것을 순종한(이행한) 인간편에서 볼때 정당한 의로운 행위로 간주되겠는가?[6] 이것이 이 글의 첫번째 의도가 된다. 따라서 최근에 밝혀진 고고학적 사실, 특별히 우가릿문화에서 얻어진 사실을 비추어서 성경과 대조하여 당시 가나안의 풍습과 종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다른 각도로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임종을 앞두고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는 때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2년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 : 15)고 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수 24 : 31)[7] 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죽은 다음세대의 어두움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삿2 : 7~10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의 세대가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고 되어있다. 이 백성이 전 세대인 갈렙과 같이 가나안족을 완전히 멸하지를 못하였다. 1장에 보면 각 지파들이, 쫓아 내지 아니하고 사역을 시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쫓아낼 수 있고 죽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욕심의 필요로 협상하고 살려주었던 것이다. 여호수아의 실수로 기브온 민족을 살렸듯이 이후 모든 민족에 대하여 그런 현실이 일어난 것이다. 거하는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의 음탕하고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신적행위와 그 비호아래 거했기에 차츰 이스라엘민족은 그 육체적 쾌락의 선을 좇았던 것이다(삿2 : 1~5).

그러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 민족과 그들이 섬기는 종교와 혼재한 상태속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현실은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때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오늘 현재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상

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족속을 쫓아 내실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신 20 : 13)…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신 20 : 16)…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3)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담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찌어다.

4)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5) M. F. Unger, Archaeology and the Old Testment. 1966, p. 167.

6) Unger, op. cit., p. 16 167.

7) 수 24 : 31

황인 것이다. 악한세대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악한 세대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현실을 맞이할 것인가를, 두번째로, 첫번째 질문의 답과 예수그리스도의 승리의 구속과 결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가나안의 위치와 종족

그러면 가나안 족을 멸절하라고 했을때 가나안의 위치는 어디이고 가나안족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가나안 땅은 제한된 의미에서, 정복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했던 요단강 서편 땅 전부였다.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가나안은 시리아의 일부를 포함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8]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틴과 페니키아(베니게)의 기원 전 30세기의 주민분포에서 적어도 숫적으로 우세했던 것은 가나안인들이었다. 그들의 언어는 이스라엘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한 말의 원어인 듯 하며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 파생어이다. 십중팔구 그들은 기원전 40세기에 팔레스티나에 정착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확실히 초기 청동기 문화의 창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9] 그런데 아모리인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서북 셈계 민족들의 대집단이 비옥한 새탈(팔레스티나에서 아라비아 북부로돌아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초생달지역) 전역에 기원전 23~20세기에 밀어 닥치고 있었다.[10]

우리는 아모라인이라는 이름을 좁은 뜻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한 민족으로만 보통 간주한다. 그러나 이 민족 이동한 대단위 아모리족은 팔레스틴을 석권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실질적으로 아모리족의 땅으로 만들었다. 기원전 18세기에는 사실상 팔레스틴과 페소포타미아의 모든 국가는 아모리족 군주에의해 통치되었다.[11] 초기 청동기 시대 말기에 팔레스타인에 침투해 들어와서 방랑하다가 특히 산악오지 지방에 정착하였던, 이집트 제국시대에 시리아에는 아무르 왕권이 존재하였었고 또 요단동편에는 아모리족의 국가가 세워진 바있다.[12] 그러나 비록 성경이, 먼저 있던 가나안인과 아모리 두 족속을 구별짓고 있는 듯한 귀절들이

8) 정인찬(편), 「가나안성서대백과」 Vol, 기독지혜사.

9)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p. 52. (김윤주 역),

10) Ibid. p. 57.

13) Ibid, p. 65.

12) Ibid, p. 170.

있기는 하지만, — 예컨데 민 13 : 29[13] 신 1 : 7[14] 의 두 귀절을 보면 아모리인은 산악지대에 살고 가나안은 해변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두 종족명은 동의어는 아니더라도 막연하게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실상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시대에 와서는 '아모리인들' 이 벌써 여러세기동안 그 땅에 자리잡고 살아오는 가운데 가나안의 언어와 사회조직과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두 종족들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을 터이니 그럴만도 한 것이다.[15] 가나안과 아모리인외에 성경은 수 9 : 1 에 헷사람, 가나안, 아모리, 브리스사람, 히위사람, 여부스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 보통 대표로 아모리, 혹 가나안인이라고 한다.

Ⅲ. 가나안 종교 연구 자료의 신빙성

가나안 정복당시의 기원전 14~12세기까지의 가나안의 종교와 풍속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조명하던 여러고고학적 사실도 발견되어 더욱 굳게 확증하고 있다. 성경외에 당시 가나안 종교를 알 수 있는 것은 고고학 발굴자료 특히 Ugarit에서 알 수 있고 또한 AD 100년 경에 페니키아인이던 Byblus의 Philo의 'Phoeoni cian Matter' 나중에 'Phoenician History' 가 된 책에서 볼 수 있다. Philo는 초기 페니키아인인 Sanchuniath n 이라는, 트로이 전쟁전에 번영했다고 알려진 Berytus의 Avnhal 왕 아래 있었던 Hierombalus에 의해 원래 수립된 자료를 전해 받았는데 그는 Philo 외는달리 아주 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Porphyry와 Eusebius는 Philo와 그의 책을 번역했다고 한다. Philo는 원래 Hierombalus가 원래 언급한 Sanchuniathon에서의 페니키아인의 신화와 우주기원을 묘사하고 있다. Sanchuniathon 이름은 페니키아에서 Sakkun - ya - ton 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의 비문으로 알려져 있다. Eisfeldt는 Sanchuniathon은 기원전 6세기 이후에는 아주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Albright는 그의 활동을 이제 막 연

13)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은 여부스족속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여라 -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지파 대표의 가나안 정탐보고 中에서

14)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15) Loc. cit.

구가 끝난 가나안 문학의 르네상스와 연결시킨다. 기원전 7 ~ 5 세기 사이에 Sanchuniathon과 Hierombalus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Philo의 페니키아에 대한 신화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페니키아 종교를 알 수 있는 자료의 가치보다는 Philo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의혹이 많이 되었다.[16]

그러나 1929년 한 농부가 시리아 해변근처 (현 구브로 즉 키프로스 섬 맞은편에 있는 Latikia 인근지) 에 있는 밭을 갈고 있던 중 한 커다란 돌 뚜껑을 파내게 되었다. 이 돌 뚜껑을 들어 올리자 지하무덤으로 통하는 길이 나왔다. 이 무덤은 상당히 넓은 묘역의 일부로 관정 되었다. 결국 구름은 Ugarit라 불리우던 고대 가나안족이 살던 페허임이 밝혀지게 되었다.[17] 이 곳은 사람이 시리아에 처음 정착한 이후 점령되었던 것 같다. 그 언덕의 가장 낮은들은 기원전 50세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아모리 사람들과 셈족 가나안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서 기원전 3000년대에 그 지역에 정착함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 기원전 20세기초에 애굽과의 동맹이 채결되었다. 우릿에서 나온 발견물들과 이 시대의 크레타 문명의 산물인 고기물들은 강한 애굽의 영향을 밝혀 주었다. 우가릿 번영의 전성기(기원전15~14세기)에 고대 가나안인들의 서사시와 신화들이 설형문자로 된 돌판등에 기록 되었다. 이 들판은 가나안 종교에 대하여 비교적 완전한 묘사를 주고 있는데[18] 이 우가릿에 나오는 가나안 신들에대한 명칭과 Philo의 것과 또는 다른 문헌들 즉 고대 애굽의 문서등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19] 그러므로 Philo의 기록 즉 페니키아의 종교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가릿이 기원전15~14세기경이고 Philo 의 Sanchaniahton은 기원전 7세기 경으므로, 가나안의 신화적인 내용의 종교가 기원전14세기 부터 7세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모세로 부터 엘리야 시대까지 가나안 종교는 일맥된 모습을 가증고 있다는 것이다.[21] 그리고 이런 '시간적 일치와 더불어 지역적 일치' 를 살펴볼때 가나안 문명권의 북쪽에 위치해 있던 우가릿시가 실존해 있던 가나안 족의 도시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거로서 Finnigan은 기원전1360년 경에 쓰여진 Amarna 문서에 의하여 가나안 지역은 북쪽으로 우가릿에 이르는 페니키아 해변임을 지적하고 있다.[22] 이 말은 가나안 종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가릿을 지역대표로 해서 우가릿의 종교를 연구함이

16) W. F. Albright, Archaeology and The Religion of Israel, pp. 69~70.

17) 라보도, "가나안족에 대한 성경 고고학적 연구", 개혁신앙 제2집, p. 14.

18) 안영복, 「구약역사」, (부산 : 양문출판사1982) p. 137.

19) Albrigh, op. cit., pp. 70~71.

21) Albright, op. cit., p. 70.

전체 가나안 종교의 모습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가릿의 문서가 시대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나안 종교의 연구자료로 충분함을 알았다.

Ⅳ. 가나안 종교의 제신과 역할 : 고고학적 측면

그러면 이 우가릿의 문헌과 Philo의 글에 쓰여진 것을 토대로 가나안 종교의 제신들을 살피고 그들의 생활과 활약을 살펴 보겠다.[23]

① El

El은 가나안의 신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이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 El과 같은 이름이다. 이 El은 북서 셈계어(히브리와 우가릿)에서는 일반적인 신의 명칭이다. 가나안 이방종교에서 있어 The strong one (Powerful)을 의미하는 El은 만신전의 우두머리이다. 가나안 종교의 조잡한 도덕성과 일반적인 비합리성에 의하면 El은 어두운 면이 있다. Philo에 의하면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그들은 그의 자매들이다.

그는 그의 고명한 위치에서 기꺼이 내려와서 더럽고 비열한 제멋대로의 짓을 하는 영웅이었다. Philo는 El을 피의 참 주로 묘사하면서, 그의 행동은 다른 신들을 두렵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딸을 목자른다. 우가릿 시(詩)는 그의 불건전한 성격에서의 무절제한 살육의 죄를 더하고 있다. 두명의 이름 모르는 여인에 대한 그의 추행은 고대 동방문학에서 가장 음탕한 것이다. 그런 추악에도 불구하고 El은 '해의 아버지(年의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 '황소의 아버지'로 추앙되었다. 즉 신들의 어버이로 암소떼 중에 황소같이 여겨진다. 그는 '신과 사람들의 아버지'였던 호머의 Zeus와 같다.

② Baal

Baal은 El의 아들이다. 만신전을 통치하는, 즉 신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는 북방하늘에 있는 어떤 높은 산에 왕좌를 베풀고 모든 가나안신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의 주'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장하는 신으로 섬김을 받았다. 사람들은 우뢰소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노라고 믿었다. 우가릿 비문에 그려진 그의 그림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왼손에는 벼락(불이 번개같이 됨 — 상상화)을 잡고 그것으로 내리치는 모습이다 우가릿 비문에서 보는대로 바알신은 또한 일명 알리얀(Aliyan; 승리자)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를 주며 풍년을 주며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써 그의 가장 큰 원수는 필연적으로 Mot이라고 부르는 죽음의 신 곧 불행의 신이었다.

Mot와의 전쟁에서 일시 그는 피살되었고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Baal의 애인이요, 누이가 되는 아낫(Anatt) 여신(전쟁의 신)이 그의 시체를 찾아 그를 다시 살렸고 그의 원수 Mot을 죽였다. 드디어 부활한 바알 신은 못 신의 왕좌에 앉아 다스림으로 세상에는 연속 7년간의 큰 풍년이 있어 모든 식물의 번성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우가릿의 Baal의 신화의 주된 주제이다. 게다가 신들의 왕이요, 폭풍의 신이면서, 정의의 신이면서, 악한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또 그는 우가릿와 Gaza에 (삿 16 : 23)사원이, 그리고 아드롯(삼상51 : 1 ~ 7)의 주요 신이었던 Dagon의 아들이라고 불리 우리도 했다. 결론적으로 Baal은 곡물의 발아와 성장, 양떼와 소떼의 증가 및 종족의 생산력에 책임을 진 다산신이었다.

③ Arath

아랏신은 Baal의 배우자며 누이였다. 그는 가나안 종교가 빠진 깊은 도덕적 타락의 암시를 주는 세 요정의 가나안 여신 중 하나이다. 다른 두 사람은Ashtarte 와 Asherah 인데 이 셋은 모두 Sex와 전쟁의 수호 성녀였다.

성서의 주신(lord of sex)으로 색욕으로써 음탕한 면이고, 전쟁은 살인과 포악의 악한 면이다. 비문에 Arath은 처녀, 그리고 거룩한자이며 또 성스러운 매춘부로서가 변함 없는 역할이다. 가나안 종교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비합리적이고 도덕적 타락의 한 다른 면을 드러낸다. 처녀와 다산의 모순적 조화는 가나안 여신 뿐 아니라, 거세와 생산력으로 가나안 남신에게도 나타난다. 양쪽은 성스러운 매춘행위를 시리아나 페니키아의 예배의식에 부수하는 것이다.

Qudshu로 불리는 여신 즉 '거룩한 유일자'는 도덕을 악용하였다. 그녀의 모습은 사자를타고 한 손에 백합을 들고 한 손에 독사를든 누드의 여자모습이다.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신적인 매춘부로 드러낸다. 같은 의미로 남자매춘부가 Qudshu의 예배에 드려지는데 그들 스스로 그녀에게 대한 경의로써 매춘한다. 그들은 Qudshu로 불러우고 성경에는 남색하는 자(신 23 : 18 왕상14 : 24 15 : 12, 22 : 46)로 번역된다. 여자 Qedeshah가 또한 발견된다. (신23 : 18, 출4 : 14) 백합화 독사는 가나안적인 특징이 있다. 백합은 그 소지자의 은혜와 Sex 어필을 입증하고 후자는 그녀의 다산의 상징이었다. 이런 외식의 애정적인 면이야말로 사회적 타락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었주는 전쟁의 수호성녀로서 Arath은 바알서사시에 딱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멸망의 피잔치가 있다. 어떤 알려지지 않

22) 라보도, op. cit., p. 15.
23) Albright, op. cit., M. F. Unger, op. cit.,
24) 원용국, 「최신 성서 고고학(구약편)」 서울 : 성광문화사, 1980, p. 269~270.

은 이유로 그녀는 사람에 대하여 악마같이 살인을 행한다. 노소를 막론하고 무시무시하고 대규모로 인간들이 그의 무릎을 꿇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자학적으로 기뻐한다. 그녀는 바알의 원수들과 싸우며 그들을 때려죽이며 그들의 피 가운데로 걸어 다니며 심지어 그 피에 자기 손을 씻는 그녀는 죽음의 신 Mot을 공격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오빠 Baal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그녀는 Mot을 칼로 쪼개고 갈아서 땅에 심었다.

④ Astarte

Astarte는 샛별의 여신 전쟁과 성의 신이며 다른 두 신과 구별되지 않는다. 신들의 어머니요. 신성한 창녀로 모든 도덕적 타락을 모두와 나눈다.

⑤ Asherah

우가릿 신화에서 El의 아내인 아세라는 '바다위를 걷는자' 로 불러운다. 그녀는 Qudshu와 나란히 기원전 15세기에 두드의 여신이다 이 명칭은 아세라의 형태로 구약성경의 특별히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약 40번 가량 나타난다. 한편 또 우가릿에서 Elat는 아세라를 가리켜 자주 사용된다. 한 여신의 명칭의 아닐 때 아세라와 그 복수형 아세림은 가나안인의 예배처소에 세워졌던 예배의 대상인 나무들을 가리켜 불려졌다. 이 아세라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통열히 비난했던 그 다산의식때 바알제단 옆에 세워졌다.

우리는 우가릿과 Philo에서 바알의 적인 죽음의 신인 Mot, 그리고 병균, 전염병의 신이며 지하세계의 주인인 reshep 건강의 신인 Shalman(혹은 Shalim), 예술과 기능의 신인 Koshar (hothar) 등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우가릿의 문헌과 자료외에 이 가나안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 1904~9년에 마카라스라가 팔레스틴 탐정대 기금에 의해 행한 게셋 발굴에서 기원전 1500년경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전 가나안인의 문화지들 중에서 가나안인들의 남신인 바알과 여신 아스다롯을 예배한 신전 '높은 곳' 의 폐허가 발견되었다. 그 곳은 돌담으로 둘린 노천인데 45×36m의 위각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은 그곳에서 종교적 향연을 행하였다. 돌담의 내면에도 1.5~3m가 되는 열개의 돌출한 기둥들이 있어서 그 앞에 희생을 드렸다. 이 '높은 곳' 가운데 있는 퇴적물 밑에서 마카리스라는 바알에게 희생으로 바쳐진 아이들의 유해가든 항아리를 많이 발견했다 (레20 : 1~ 렘19 : 5~) 그리고 그 지역 전체는 생후 얼마 안되는 아이들의 묘지인 것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그들은 '정초의 희생' (기초희생)이라는 무서운 습관이 있었다. 집을 세울 때 아이를 죽이고 그 시체를 벽속에 넣고 발라버려서 다른 가족의 행운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행하였는데, 이런 것의 다수가 게셋에서 발견되었다. 희생된 유아의 시체는 함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은 신에게 제사드려졌고 그후

에 매장되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들은 유아들의 공적인 살인자들이었다. 또한 마카리스라는 이 '높은곳' 퇴적물 밑에서 수다한 아스다롯 상과 부속품들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성욕의 유발을 시도한 듯한 심히 과장된 성기가 붙어 있었다.

이와같이 제의적 매음, 동성애 등 온갖 퇴폐적 풍습이 성행했다. 그렇게 예배드리며 또 자기 신들에게 희생제물로 그들의 첫 아들을 죽여 바친 것이다. 이런 일은 가나안 땅 대부분의 국가들이 행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이같이 행했다.[24]

V. 가나안 종교의 제신과 역할: 성경적 고찰

이제 가나안의 모습을 성경적인 근거에서 위의 사실과 부합되는 가를 살펴보자.

레위기 18~20장 까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해 오기 전에 가나안족간에는 일상 있어 왔던 부도덕한 습관들이 길게 열거되어 있다. 간음죄와 남색 짐승과의 교접같은 죄들이 언급되고 있다. 모세는 이것들을 말한 후 너희는 이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백성중에서 그쳐지리라' (레18 : 24, 29) 보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족의 악한 행위로 가득찬 이 습관들은 가나안의 제신들의 허락하에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종교활동의 일부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의 주인을 철저히 멸하도록 명령했을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그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라 (신20 : 11) 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그 신들에' 란 본문에 유의하라 여기서 '이 가증한 것들' 은 가나안 종교의 일부분이 되었음을 분명히 의미한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나안의 신들을, 유난히 심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있다. 간음과 가나안의 종교활동과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암시는 신 23 : 17~19까지의 말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간음외에도 그보다 더 타락한 남색행위 역시 가나안의 종교활동의 일부였다. 성경에서 요시아 왕이 새로운 개혁을 단행했던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더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장막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왕하 23 : 7) 라고 하였다.

이런 가증스런 짓을 그 신들에게 행한 것을 우리는 앞서 고고학적인 반론과 자료에서 살펴 보았다.

Ⅵ. 결　　론

서론의 첫번째 문제에 답하기 위해 가나안 숭배의 성격을 종합해 보자.

J·Gray가 가나안의 종교가 전적으로 풍산제의(생식숭배)에만 몰두하고 사회적 관심은 없었다고 경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J·Bright는 가나안 종교를 전체적으로 살필때 아무래도 추악하다는 인상이 남는다고 했다.

구약학자 Unger는 가나안 종교의 특징을 4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말할 수 없는 부도덕이다 그들의 예배는 잔인하고 정욕적이며 미신적이다.

② 가나안 우상숭배는 쇠퇴하고 부패 한 것이었다. 즉 생명력이 없고 추잡하고 무익한 것이었다.

③ 가나안 우상숭배의 성격은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함으로 공의의 불을 끌어 내린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일으킴과 같이 그들의 죄악이 가나안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다. (창 6 : 1 ~ 9)

④ 가나안 우상숭배는 무서운 악에 물들게 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했다.

이제는 Rowley교수의 의문을 답변할 때가 왔다. …"이리 하고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멸절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것일까"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가나안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방관하여 그들과 합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현실로 주어졌는데 왜 이들은 쫓아내지 않았으며 쫓아내지 않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원인을 더듬어 보면 역시 그들의 조상들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민13 : 27~33, 참고 히3 : 16~19)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땅이고 (창15 : 14~16)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신 7 : 1, 출34 : 13, 수11 : 14)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며 아들을 얻었듯이, 이스라엘도 아낙자손과 같은 장대한 그리고 인간적으로 호색하기에 좋은 유혹되는 여건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므로 다만 믿기만 하고 들어가서 취하기만 했으면 되는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랬고, 여리고성의 파괴가 그랬고 아모리왕과의 싸움에서 태양이 머물러 승리케 한 사실이 그러했다. 이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에 그것은 때가 되어 내 백성의 것이 되어 있다. 아모리의 죄악은 관영하고 그 땅은 그 백성을 토해 내고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승리와 소

유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믿지 못하므로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관용이 그들을 함께 있게하고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 1 : 23) 하나님은 저희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롬 1 : 24) 성적인 범죄, 도덕적인 죄로 들어가게 된것이다. 가나안의 수많은 죄를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이 범죄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외치고 있다. 아합과 바안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와의 갈멜산의 제사대결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친다.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찌니' (왕상18 : 29)

이런 범죄의 세상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위협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성령을 모독하는 불건전한 성령운동의 바람과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는 갈대아인과 같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Iodology들과 물량 문명의 물량주의와 성적인 타락의 오늘의 현실과, 오늘도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오직 그 예수 그리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한 사실만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속에 거하는 삶 중에

비록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전에 서로가 패배했고, 나의 과거의 삶이 패배했던 이 땅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 모든 나의 싸울 싸움을 다 싸워서 죽음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신 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 : 4)

참 고 문 헌

- 김희보, 「구약이스라엘사」, 서울 : 총신대출판부, 1981.
- 라보도, "가나안족에 대한 성경 고고학적 연구", 「개혁신앙」, 제 2 집(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1982, pp. 13~26.
- 안영복, 「구약역사」, 부산 : 양문출판사, 1982.
- 원용국, 「성서 고고학」, 서울 : 성광문화사, 애블라 왕국에 대한 소고", 「신학지남」, 1980년 가을 겨울호(총신대), pp. 136~142. 「최신 성서 고고학」, 서울 : 경향문화사, 1983.
- 정인찬, 「성서 대백과」, Vol. I, 서울 : 기독지혜사.
- Albright, W. F. Archaeology and the Religion of Israel, Baltimore: The John Hopkins Press, 1956, The Archaeology of Palestine, London: Penguin Books. 1956.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Garden City: Doubleday and Company, 1940.
- Bright, J. 「이스라엘의 역사」, 김윤주(역), 왜관 : 분도출판사.
- Bruce, F. F. The Books and the Parchments, 1965.
- Finegan, J. Light from the Ancient Past, 1959. Princetceton: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ary, Archaeology and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 House, 1965.
- 할레이, 「성경핸드북」, 박양조(역)
- 해리슨, 「고고학 개요」, 1965.
- Kelso, J. L. Archaeology and Old Testment Contemporaries, Grand Rapids: Zondervan. 1966.
- Parrot, A. Abraham and His times, J. H. Farley(Trans.), (Philadelphia: Fortrets Press.) 1962.
- Parrot, A. Land of Christ, J. H. Farley(Trans.),
- Pffeiffer, C. F. The patriarchal agé,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1962. 7
- Unger, M. F. Archaeology and Old Test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69.
- Wright and David, The Biblcal Archaeologist, Vol. I, II, Anchor. 1964.
- Wright, G. E. Biblical Archaeology, Philadelphia: Westerminster Press. 1957.
- Young, E. J. 「구약총론」, 오병세 · 홍반식(역), 서울 :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고신대학의 구약학 교과과정 해설

〔과목앞의 숫자는 과목번호〕

1. 대학과정 (B. A)

구약개론 (3학점)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구약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총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교수가 쓴 「구약요람」이란 교재를 가지고 성경이 어떤 책인 것을 이해시킴과 함께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요한 메시야 사상을 독자적으로 살펴보게 하며, 강의시간에는 구약 각 책의 주요내용을 계획표에 따라 연구함으로서 구약성경에 담긴 주요진리를 파악케 한다.

구약역사 (3학점) History of Old Testament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고고학적 자료와 비교 연구함으로 구약역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아울러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한다. 라틴어 기초문법을 공부한다.

구약신학원서 강독 (3학점) English Reading in O.T Theology

전문적이고 각론적인 '구약신학' 과목을 접하기 전에 구약신학에 관계된 좋은 영문서적을 접하게 함으로 영문 독해력을 길러줌과 아울러 구약신학의 기초를 쌓아준다.

2. 신학대학원과정 (M. Div.)

1501 / 1502 **히브리어 A (Hebrew A, 6학점)**

안영복편 "구약 히브리어 연구의 정도"를 교재로, 비교 셈족 어학에 기초, 발음론·형태론·구문론을 연구하므로, 구약원문 독해의 능력기반을 구축한다.